

대화 없는 소통, 고독한 채팅방이 떴다

글 남지은 | 한겨레신문 기자 | myviolet@hani.co.kr



지난 8월 25일 서울 화양동 건국대에서 진행된 방송인 유병재의 팬미팅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소리 내지 않는 것.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는 만남인데, 어떤 말도 하지 말 것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지됐다. 좋아하는 스타를 앞에 두고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는 팬미팅에 누가 가려고 할까? 하지만 이는 기우였다. ‘조용한’ 800석은 10초 만에 매진됐다.

일명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팬미팅’.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휴대폰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유병재가 데뷔 8년 만의 첫 팬미팅을 이런 콘셉트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팬들이 자신처럼 소심한 성격이어서다. “제 팬들은 온라인에서는 활발한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조용해요.” 실제로 유병재 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스엔에스·SNS)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목받는다. 유병재는 온라인에서 ‘유병재 얼굴 그리기 대회’ 등의 이벤트를

를 자주 진행한다. 팬들은 발바닥에 유병재 얼굴을 그리거나, 옥수수, 두리안 등에 합성하는 발랄함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도 했다. 이런 독특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너무 압권하단다.

정말 말을 안 할까, 의심했던 게 미안해질 정도로, 이들은 정말로 조용했다. 공개홀에 들어가자마자 행사 직전인데도 입을 모두 다물었다. 유병재가 등장해도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싶던 ‘나의 스타’가 눈앞에 있는데 어쩔 누구도 “까

악'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대신 무대 위에 펼쳐진 채팅창 화면은 난리가 났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팬미팅'이 시작되자 무대 앞 화면에는 채팅창 두 개가 떴다. 하나는 유병재가 올리는 글이 보이는 화면이고, 하나는 800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방이다. 단체방에는 "병재님 사랑해요" "너무 떨려요" "저 혼자 왔어요. 혼자 온 사람" 등 글이 너무 빨리, 많이 올라와 읽기가 버거울 정도였다.

'고독한 팬미팅'이지만, 할 건 다 했다. 유병재는 채팅으로 팬들에게 말을 건네며 번호 추첨을 해서 몇 명을 앞으로 불러냈다. 화면에 제시되는 초성을 보고 단어를 맞히는 초성게임을 시작하자 객석이 아니, 채팅방이 자지러졌다. 팬을 불러내어 채팅으로 대화하며 말 없이 밥도 먹었다. 유병재는 한 달간 연습했다는 빅뱅의 '뱅뱅뱅' 춤을 음악 없이 췌다. 초대 손님으로 나온 코미디언 김수용과도 말 없이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말 없는 팬미팅이 뭐가 재미있을까, 싶는데 재미있다. 오프라인은 숨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한데, 무대 앞 온라인은 시장바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시끌벅적하다. 팬들은 숨 죽이고 앉아서 무대 위 유병재를 촬영한 사진을 영땡한 모습과 합성해 채팅창에 올리기도 했다. 언제 저렇게 만들었을까, 오프라인에서 만나 온라인에서의 그 기발함을 그대로 뽑냈다. 그 온도차에 피식 웃음이 터지면 대기하고 있던 스님이 죽도로 유병재의 어깨를 치는 '벌칙'도 제기발랄했다. 그들은 '고독'했지만 고독하지 않았다. 말만 하지 않았을 뿐, 세상 누구보다 즐기고 있었다.

고독한 단톡방의 인기

유병재의 '고독한 팬미팅'은 지난해 유행한 '고독한 단톡방'의 인기와 맥을 같이 한다. 수백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익명 단체방에 들어와 말없이 사진만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다. '고독한 전광렬방'에서는 전광렬 사진으로만 대화해야 한다. '여러분 어디세요'라고 글을 적은 전광렬 사진이나, 프로그램 캡처한 사진 등을 올려 질문하면 역시 비슷한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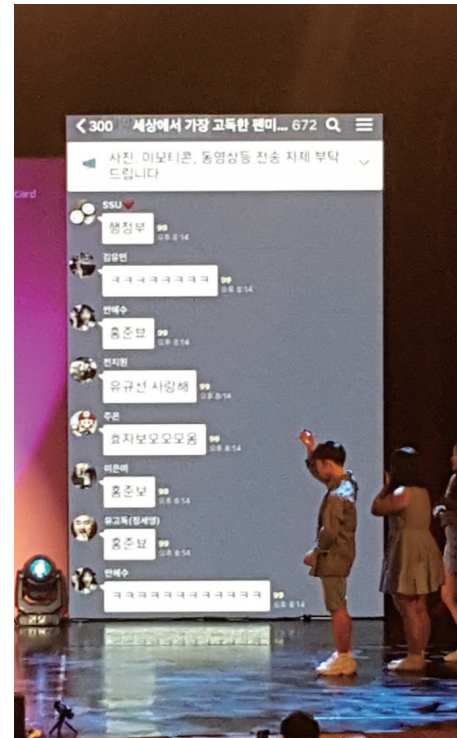
으로 대답한다. '고독한 박명수방', '고독한 무한도전방' '고독한 미식가방' 등이 인기를 얻었다. 오픈 채팅방의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은 1,000명인데, 순식간에 참여자가 꽉 찬다.

이들은 왜 스스로 '고독자'가 되려는 걸까. 많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노는 문화에 익숙하고, 인간 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수많은 이들과 공통 관심사를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등 플랫폼의 발달로 혼자서도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통로들이 많아지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이들이 모여 '동병상련'하는 느낌으로 일종의 놀이를 즐긴다. 유병재의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팬미팅' 참가자도 대부분 혼자 온 팬들이었다. 대화보다는 '클릭'이 편한 세대의 출현이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2015년부터 혼술, 혼밥 문화가 자리 잡는 등 '홀로'의 삶을 잘 영위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사회 분위기도 고독을 즐기는 문화를 응원했다.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에 이른다. 90년대보다 5배 이상 늘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사람들은 남과 불편하게 엮이는 자리를 거부한다. 갈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사회에서 차라리 혼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스스로 즐거운 일을 찾아나서는 것을 선택한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20대 4명 중 1명이 '면대면 대화나 전화보다는 문자나 메시지를 통한 대화가 더 편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독'은 고독하지만 '고독'이 아니다. '고독'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스스로에게 기대는 힘 '자기력'의 다른 말로 여겨진다.

그래서 최근 '고독'은 문화를 즐기는 하나의 콘텐츠로도 주목받는다. 과거에는 '쓸쓸함' '청승' 등으로 비하되던 '혼자'가 이제는 그 자체로 시장성을 인정받는다. 유튜브 등에는 '먹방'(먹는 방송)이 넘쳐 나고,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다.

아프리카 TV에서 시작해 B급 문화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TV 프로그램으로도 등장하며 주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영상 속에서 누가 먹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고, 혼자 공부하는 영



상을 쳐놓고 같이 공부한다. 혼자서 대중성이 아닌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방송을 만드는 1인 미디어도 이제는 일반화됐다.

출판, 마케팅으로 확장된 '고독'

고독의 힘을 강조하는 관련 출판도 줄을 잇는다.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헨리 데이

비드 소로의 <고독의 즐거움> 등이 대표적이다. 혼자 있는 시간의 장점과 즐거움 등을 얘기하며 '자기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 받을 용기> 열풍 역시 고독의 인기와 비례한다. 작가는 모든 고민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가 얽혀 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한다. '싱글', '솔로'를 키워드로 삼아 등장한 책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오프라인의 불편한 소통보다, 온라인의 말 없는 소통을 선호하면서 '침묵 마케팅'도 덩달아 형성됐다. 타인과의 면대면 접촉을 피곤하다고 느끼는 세대들이 중심이 된 '조용한 소비'가 인기다. 한 화장품 매장은 '혼자 불개요'라고 적힌 비구니를 두고, 이 비구니를 든 손님한테는 점원이 말을 걸지 않게 했다. 한 커피전문점은 모바일 앱으로 미리 주문, 결제하고 매장에서 음료만 받아가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20~30대가 8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침묵의 소통'은 대중문화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가상의 공간에 집중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선도 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팬미팅'도 800명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정작 옆자리 사람과는 소통하지 못했다. 같은 스타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소통 가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온라인에 집중하느라 정작 옆자리 '동료'에게는 무심했다. 침묵의 소통이 세대 간의 소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마트폰과 SNS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이들과 공감할 수 없다. 말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온라인에 집중할수록 세상은 어찌면 더 삭막해져갈지도 모른다.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에게 기대는 자기력의 다른 말이라는 것을 곱씹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팬미팅'이 끝날 무렵 내내 침묵하던 유병재는 예정에 없던 이벤트를 했다. "팬 한분 한분과 하이터치를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문으로 나와 주십시오." 침묵해달라는 요구에 너무도 잘 따라준 팬들에게 고마워서였다. 그렇게 온라인에서만 활발하던 침묵의 팬미팅은 결국 스킨십이 가득한 면대면 소통으로 끝맺음했다. 팬들은 더 좋아했다. ①